

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전북, 경남 해역에서 보름달물해파리 유·성체 0~549마리/100m²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물과학원(원장 우동식)은 6월 8일(목)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100m²(성체)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지자체가 5월부터 예찰한 결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m²당 550여 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의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 전라북도 : 2~32마리/100m², 경상남도 : 0~549마리/100m²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해파리 부착으로 인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전북 전체해역, 경남 자란만·거제 해역에서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주의단계에서는 지역어선을 투입하고, 향후 특보단계가 상향될 경우 유관기관 선박 등 투입 계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출현에 대응하여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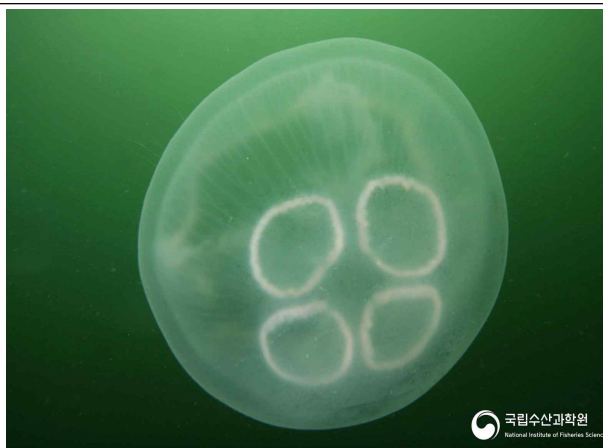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 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정은주 (044-200-5542)
	해양정책관 해양레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안숙현 (044-200-5253)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정래홍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역>



보름달물해파리

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하세요!



모바일 웹 신고

여러분의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는
해파리 출현정보로 이용되어
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쓰임 방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 QR코드 접속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신고 방법 2

포털사이트(구글 등)에서 “해파리 신고”검색하여
“해파리정보시스템-국립수산물과학원” 페이지로 접속하여 “해파리 신고 web” 클릭

